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온전한 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임채정선교사님과 가정의 17일(화) 선교지로 출국하십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득집사님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태평로 161-1 3층 드림치과기공소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2021 한마당 잔치가 14일(토)-16일(월) 매일 오후 7시에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송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2 호

2021년 8월 1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독도 분쟁, 혐한... 광복 76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제한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일본과의 골이 깊다는 것을 세삼 확인하게 됩니다.

36년 일제 강점기의 역사는 그 두 배를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 정서에 뿌리 깊게 남아 일본과는 가위, 바위, 보! 도 저서는 안된다는 우습지만 뼈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눈뜨고 코베인 시절. 글을 잃고, 말을 잃고 끝내는 이름까지 잃었던 36년의 그 세월이 얼마나 독했으면, 그 시절을 겪지도 않은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고, 국민 전체가 이토록 일본에게 과하리만큼 예민해지게 만드는 걸까.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파친코'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미국 이민 2세대인 이민진교수의 역사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넘어갔던 조선인들의 삶을 4대에 걸쳐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일본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 조선인들이 삶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을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민진 교수는 해외 여러 나라, 특히 서구사회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를 알리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이 소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사람들도 이 소설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이민진 작가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자신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숨겨놓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 출발점을 지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이 출발선을 넘을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작가들은 글로 알리고, 어떤 이들은 역사 왜곡과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일은 사실 70년 동안이나 되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정직하게 역사를 인정하라는 외침은 한 귀로 들어가면 한 귀로 흘러나오는 듯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화해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출발선을 넘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대다수가 복음도 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지도 낮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본이 강력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참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 해야 합니다. 어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예전 전쟁의 승리에 취해있거나, 아니면 패전의 고통에 사로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직해질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해방을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도 복음으로 영적 해방을 허락하셔서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한주간 말씀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51편

제목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73 278 261 263 286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 1-5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 6-12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 13-1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 18-19 국가를 세워주십시오.

2. 내용의 의미(Why)

- 1) 죄에 대한 감수성 회복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
- 2)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 3) 죄로 인해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게 해 달라 간구하는 다윗.
- 4) 공동체나 국가의 대표가 죄에 더 쉽게 노출되며 넘어집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될 때 죄와 연관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2)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이다.
- 3) 우리 안에 죄의 문제로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 4) 국가나 단체의 대표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성서일기

흑사병 가운데 드린 기도

츠빙글리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519년 8월과 1520년 2월 사이에 취리히에 흑사병이 돌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은 일이 벌어졌다. 츙빙글리는 목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에 자신도 앓아눕고 말았다. 이때 그가 지은 시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낫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츙빙글리는 회복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박경수 교수, [교회사 클래스] 중에서.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4 : 3-6 인도자
2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베소서 1 : 7 인도자
337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15 : 5 - 12 설교자
582 사랑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정재훈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54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윤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큰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안정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나간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속성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앞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다른 이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우리집 “아빠와 함께 캠프”

지난 5월말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민용이가 6월 계획표를 꺼내 보여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캠프가 없데’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민용이 아빠캠프 못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이야기가 발전되어서 “우리집 아빠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6월 둘째주 주말로 날짜를 정하고 프로그램도 정했습니다. 보물찾기, 구워먹기, 물총놀이 등등 보물찾기 후에는 선물 증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자 역할도 정했습니다. 아빠는 텐트치기와 구워먹기 준비, 엄마는 보물찾기와 선물 준비, 아이들은 텐트 앞에 설치할 문패 만들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없는 틈에 물총놀이에 함께 할 물풍선과 비누방울 놀이를 준비해 놓고 같이 구워먹을 마시멜로와 쥐포, 고기도 사 두었습니다. 또 텐트에 깔 매트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저렴한 걸로 주문하고, 같이 놀기 위해 새총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힘을 모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문패를 만들었지요.

이제 드디어 캠프 날. 집 앞 평상에 텐트를 치고 문패도 내다 걸고 가까이 살고 있는 외삼촌도 초대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깡통을 걸어놓고 새총으로 맞추기도 하고, 집 주변에 숨겨둔 보물도 찾고, 물풍선도 던지고 물총도 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바탕 놀고 나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저녁을 먹고 보물찾기 결과로 선물도 주었습니다. 선물은 그냥 젤리 몇봉지와 장난감이 들어 있는 초코렛이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 잠잘 시간이 되자 민용이는 아빠랑 텐트에서 자겠다고 베개와 이불을 챙겨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한방에서 잘 때도 엄마한테 떨어져 아빠 옆에 가서 자는 법이 없
배움과 가르침

는데 그 날 만큼은 ‘아빠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빠랑 같이 텐트에서 잤습니다.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민용이가 엄마도 찾지 않고 잘 잤고, 심지어 자다가 쉬가 마려워 일어났는데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텐트로 돌아와서 잤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고 하고요.

그렇게 민용이를 위한 우리집 아빠캠프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마치면서 민용이가 ‘만들기’도 해야되는데 못했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꾸러기학교에서 아빠캠프를 하면 아빠랑 만들기 시간도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하고 같이 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진짜 ‘아빠캠프’에서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빠들이 준비하는 바비큐, 또 시원한 물총놀이, 보물찾기 후 선물을 받는 것 등등. 예전에 했던 아빠캠프의 기억을 되살려 재미있었던 순서들을 짜 넣은 것이었죠.

아이들에게 꾸러기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빠와 함께 캠프는 참 특별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하게 된 우리집 아빠캠프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별동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끼리 소원을 말하는 데 역시 소원 1위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많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러기들을 꾸러기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주로 선제검사를 받고, 지금 상황에 적당한 견학장소를 찾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처럼 하루빨리 우리의 환경이 나아져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꾸러기학교로부터 받은 행복한 기억’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꾸러기학교 돌고래반 최민용 엄마 노미현

뜨거운 여름에 함께 한 일

이번 여름에 공동체에서 특별히 다함께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건물철거입니다. 방학을 한 사이 작년에 신고 받아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나집사님의 진두지휘 아래에 새벽 6시 정도에 나와서 건물을 뜯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위의 운동장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 비닐하우스를 1개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벽으로 된 나집사님 하우스 짐을 새 비닐하우스에 옮기고 가벽 하우스를 다 뜯었습니다. 농사, 수리, 보수 도구로 가득찬 짐은 정말 많았습니다. 나사를 빼는 것도 일이고, 해머로 치고, 온갖 크기의 나무를 이리저리 나르고 정말 손이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뜨거운 햇볕이 7시전에 들어오면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더워서 참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에는 작년에 태풍 때문에 날아가서 보수한게 생각나며 어렵게 지어서 얼마 쓰지 못한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우스 작업에 며칠이 걸린 후 들어간 작업은 주일에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시던 휴게실 철거였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했지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셨는지 나사도 많고, 못도 많고, 타기도 많아서 철거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깊게 박힌 나사와 못을 다 뺄 수 없어서 힘으로 열심히 뜯기도 하고, 트럭에 나무를 실어서 몇 번이나 옮기는데 차가 휴게실 바닥에 올라가도 끄떡도 안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텅텅 빈 휴게실을 보면 아마 모두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같이 정리했는데 코로나19로 자전거를 안 타기도하고, 보수 할 것들이 많아 이번에 못 쓰는 자전거도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장 더울 때 농사짓는 나집사님, 예초기 돌리시는 김종필집사님, 교회일과 학교일로 계속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등 사실 쉬고 있어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공동체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흩어져있지만 모두 쉬기도 하고, 일도 하는 일상은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쉽지로 회복도 하면서 또 새출발하는 모든 사랑방식구 모두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잠언 7장
인 도 : 정재훈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터키를 위한 기도>

터키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서부 무을라, 아이든 주 등으로 확산하면서 대규모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최소 8명이 숨지고, 860여 명이 부상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재민들과 사상자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한마당 잔치를 위한 기도>

- (1) 온라인으로 3일동안 진행되는 한공협 한마당 잔치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 어려운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 (3) 한공협 단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휴가 중에 있는 지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 (2) 무림리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에 접어들면서 무더웠던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게다가 중간 중간 내려주는 비가 뜨거운 대지를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아직 휴가기간이어서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각자 편안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밭의 작물들은 무럭무럭 자라주어서,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갭게 익은 토마토와 참외를 따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우리 밭에서 딴 작물들이 내는 맛은 어느 곳에서 사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쉬는 때에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일 순번대로 당직을 서면서 공동체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 정재훈 목사 >